

논단

DDC에서의 한국, 조선 및 동해의 표기 문제



전창호*

1. 들어가며

문헌분류법이라 함은 좁게는 도서관에서 문헌을 분류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만, 넓게는 인류의 지적 소산을 조직하는 시스템으로 중차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분류법의 분류체계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분류표에 채용되는 표목은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객관성과 정확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근자에 고구려, 독도 및 동해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각국 간의 정치·사회적 분쟁과 관련하여, 135개가 넘는 국가에서 보편적(universal)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헌분류법인 DDC의 역사적, 지리적 관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

중국의 학계에서는 2002년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공식 출범을 통해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사관에 입각해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중국의 변방사에 편입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크게 반발하여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는 등 역사지킴이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일들이 불거졌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들이 고구려 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실을 보도하면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중국 외교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한국의 삼국시대에서 고구려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렇듯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민감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DDC에 의하면 어이없게도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DDC

* 부산여자대학 중앙도서관 사서, chjeon@selsong.pwc.ac.kr

를 펼쳐보자. 아시아 역사의 분류는 950 내에 전 개된다.

- 951 Chinese and adjacent areas
- 952 Japan
- 953 Arabian peninsula and adjacent areas
- 954 South Asia India
- 955 Iran
- 956 Middle East (Near East)
- 957 Siberia (Asiatic Russia)
- 958 Central Asia
- 959 Southeast Asia

중국, 일본, 이란은 보이는데, 한국은 어디 있 을까. 951 Chinese and adjacent areas를 유 심히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국가 들이 전개되어 있다.

- 951.2 Southeastern China and adjacent areas
- 951.7 Mongolia
- 951.9 Korea
- 951.93 North Korea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²⁾
- 951.95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분류표상에서 대만과 몽골, 그리고 한국은 중 국의 인접국가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인 걸까. 여기서 다른 나라-이를테면 요목이 배정된 일본이나 이란 등의 발목을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소위 '잘 살고', '힘 있는'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도 세목에 배정된 국가도

많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모든 국가들이 동위의 분류기호를 갖기를 원할 경우 십진분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Chinese and adjacent areas' 라는 표목에 계속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면 DDC를 채택한 모든 도서관의 사서 및 이용자들에게 한국이란 중국에 종속된 국가 로 인식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또한, 분류표의 형식 측면에서도 951의 불합리 성을 지적할 수 있다. DDC의 지역구분에서 사용 되는 표목은 크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데 첫째는 958(Central Asia), 959(Southeast Asia) 등 과 같이 포괄적인 지리명으로 통칭하는 것이고 둘째는, 944(France and Monaco), 962(Egypt and Sudan), 971(Canada), 973(United States), 981(Brazil)처럼 1개국 이상의 국명을 표목으로 두는 것이며 셋째는, 943(Central Europe Germany), 947(Eastern Europe Russia), 954(South Asia India), 968(Southern Africa Republic of South Africa), 972(Middle America Mexico) 등과 같이 포괄적인 지 리명에 대표적인 나라의 국명을 부기하는 방식이 다. 그 중에서, 'adjacent areas' 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분류기호는 951과 953(Arabian Peninsula and adjacent areas)의 두 가지 뿐인데, 953의 경우 국명이 아닌 지리적 명칭을 표목으로 채용하였 다. 즉, '국명+adjacent areas' 은 유독 951에서 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951의 표목을 'China, Mongolia, Korea' 로 병기하거나 또는 상위개념 의 'Northeast Asia' 로 포괄하여 표기하는 방 책을 제안한다.³⁾

2) 북한의 정식 영문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따라서 DDC의 표기는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3) 참고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비취질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동북아시아 3국의 철학, 어학, 문학 분류도 옮겨본다.

181 Oriental philosophy	181.11 China and Korea	181.119 Korea
181.12 Japan	495.1 Chinese	495.6 Japanese
495.7 Korean	895.1 Chinese literature	895.6 Japanese literature
895.7 Korean literature		

3. 이씨왕조시대?

우리나라 역사를 분류할 수 있는 951.9에는 고대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현대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DDC는 조선시대를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951.902 Period of Yi dynasty, 1392-1910

직역하면 '이씨왕조시대'이다. 이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일제학자들이 만든 것으로, '이씨조선', '이조시대', '이조백자' 등과 함께 지양해야 할 용어의 하나이고 우리 정부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에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응당 DDC에서는 정식 국호인 '조선'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DDC에서 한국역사는 통일신라, 고려뿐만 아니라 고조선, 고구려를 포함한 삼국시대, 발해까지도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

4. Sea of Japan?

얼마 전 200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최국인 포르투갈의 리스본 중심가인 코메르시오광장 바닥에 일본업체 캐논이 설치한 대형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물론 이러한 해프닝은 동해와 독도와 관련한 무수한 사례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DDC에서 지역구분은 Table 2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와의 조기성으로 -519가 배정된다.

- 51 Chinese and adjacent areas
- 519 Korea
- 5193 North Korea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 5195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등 주요 지명에 각각의 분류기호가 주어진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남한과 북한으로 끝이다. 심지어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인 서울조차 빠져 있다. 이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동해'는 DDC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16454 Sea of Japan

Including Korea, Tatar, Tsugaru Straits

Sea of Japan 즉, 일본해로 기술되어 있다. 여러 면으로 예민한 문제이긴 하나, 필자는 지금부터라도 'East Sea'를 병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국가들의 국립도서관과 도서관협회와의 협력으로 DDC 21판에서 브라질, 그리스,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지역구분표가 개정되었고 22판에서도 폴란드, 동티모르, 퀴백 등의 항목에서 개정, 확장 및 재배치된 사례가 있는 바, 차후 DDC의 개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도서관계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Table 2에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도 확장전개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가능한 한 '독도'도 삽입했으면 한다.

4) 현재 DDC에서 한국역사는 1392년 조선건국 이후의 내용만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제3자로 하여금 한국이 마치-상위의 분류기호를 가진-중국에서 분리독립한 듯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5. LCC와 LCSH는?

그렇다면 다른 분류법은 상기의 주제명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세계 최대의 열거식분류 표로 평가받는 LCC의 한국, 중국, 일본의 지리적 계층관계는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G - Geography (General). Atlases. Maps

Atlases

- G2305-2309 China. Chinese Empire
- G2330-2334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 G2355-2359 Japan

Maps

- G7820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 G7900-7904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chosen
- G7905-7909 North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GB - Physical geography

- GB316 China
- GB319 Korea
- GB322 Japan

LCC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관련 분류기호는 다음과 같다. LC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씨왕조'의 문제점이 노정된다.

DS - Asia

- DS701-799.9 China
- DS801-897 Japan
- DS901-937 Korea

(중략)

- DS911 Earliest to 935.
Silla kingdom, etc.
- DS912 Koryŏ (Koryu) period, 935-1392.
- DS913 I (Yi) dynasty, 1392-1910.
- DS915 19th century
- DS916 20th century

(후략)

그리고, 여건상 LCSH(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를 직접 살펴보진 못했으나 미국의회도서관의 목록을 통해 조선, 동해, 독도의 주제명 표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의 주제명표목은 'Korea History Choson dynasty, 1392-1910' 와 'Korea History Yi dynasty, 1392-1910' 가 같이 쓰이고 있으며, 동해를 뜻하는 표목은 나타나지 않는 대신 일본 해인 'Japan, Sea of 가⁵⁾, 독도의 경우는 'Tok Island(Korea)' 와 'Takeshima(Japan)' 가 사용되고 있다.⁶⁾ 다만, 고구려는 아래와 같이 명백히 한국역사에 포함된다.

Koguryo (Kingdom) Korea History

Koguryo (Kingdom)--Foreign relations--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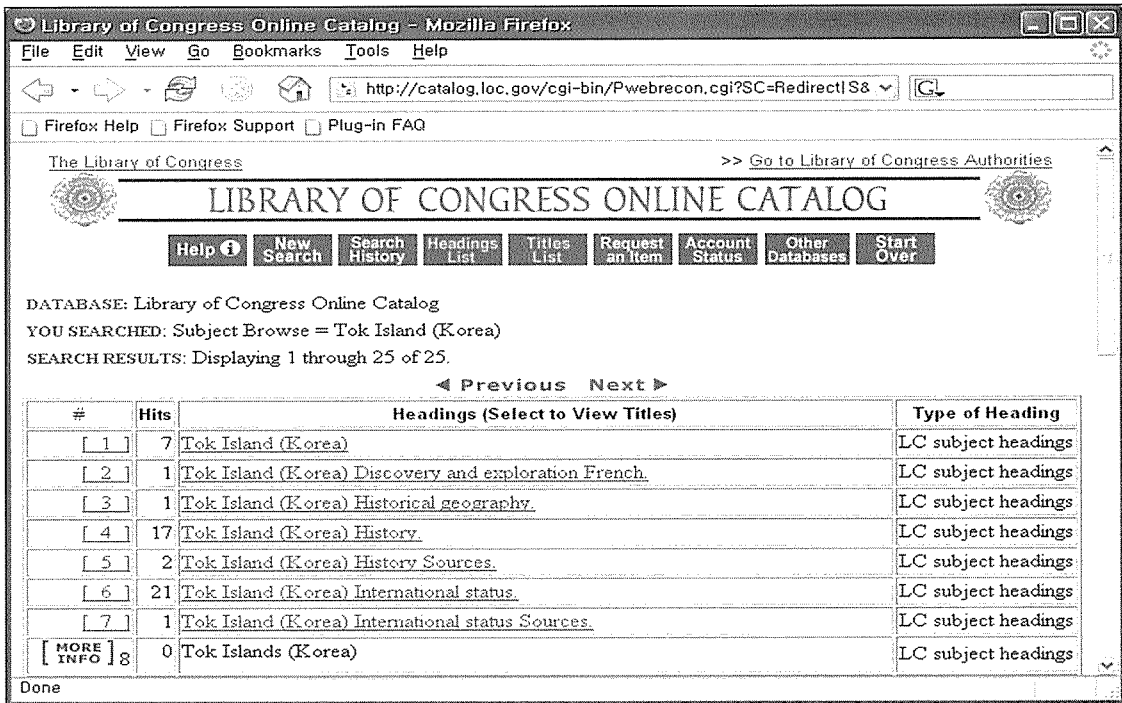
China--Foreign relations--Koguryo (Kingdom)

6. 맺으며 : 침묵은 동의의 표시⁷⁾

세계의 교과서, 출판사, 학교,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정보 오류시정운동을 통해 잘 알

5)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East Sea in world maps'의 서명을 가진 지도와 "'Tonghae" chimyong p'yojunhwa rul wihan kukche semina'라는 책에도 'Japan, Sea of'라는 주제명이 부여되고 있다.


6) 2004년 7월 중순을 기준으로 주제명 Tok Island로는 <그림 1>과 같은 수의 문헌을, 주제명 Takeshima로는 1건의 문헌을 브라우징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그림 1〉 LC 온라인 목록에서 '독도' 주제명표목 브라우징

려진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중국이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조작하려는 동북공정 사업을 벌이는 것이나 일본이 일본해 및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잘못 알려짐에 따라 초래된 결과라 한다. 즉, 대부분의 외국교과서에서 한국의 역사를 '피침의 역사', '속국의 역사'로 규정하여 한국은 독립적인 주체국가가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 국가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나 웹사이트로 인한 폐해가 그러할진대 '지식 조직 시스템(system for organizing knowledge)'으로서 문헌분류법이 미칠 영향력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DDC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DDC의 문제점과 오류를 묵과하는 것은 지식인 이자 전문직임을 자부하는 사서가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닌 듯 하다. 주도적인 사회적 아젠다 설정은 고사하고 이미 형성된 여론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서관계는 사회로부터 도외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서관협회와 국가대표 도서관을 중심으로, 논의과정에서 자칫 국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외국의 문헌분류표와 주제명표목표에 나타난 부적절한 한국 관련 표기를 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 서양속담. Silence gives consent.

■ 참고문헌 ■

- 김영귀. 1997.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論文集-신라대학교』, 44(1) : 237-272.
- 남태우. 1996. DDC 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4) : 85-104.
- 오동근, 여지숙, 배영활. 2004. DDC 제22판의 개정과정과 새로운 특징(1). 『圖書館文化』, 45(1) : 26-35.
- 대한민국사이버외교사절단. <<http://www.prkorea.com>>
- “동해명칭문제”.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division/Eastsea.mof>>
- 우리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 <<http://www.historyworld.org>>
- “한국오류바로잡기”.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http://correct.korea.net>>
- “Dewey services”. OCLC. <<http://www.oclc.org/dewey/>>